



"소경 갓난아이 더듬듯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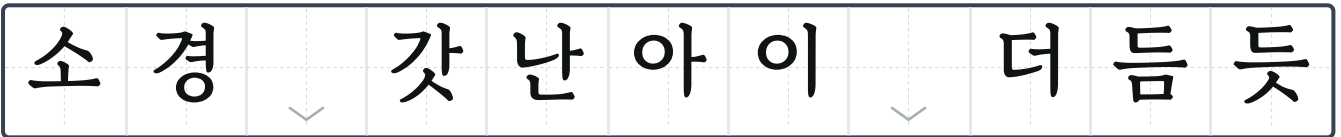
뜻: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갓난아이처럼 서투르게 물건을 만지듯이, 어떤 일을 잘 몰라서 제대로 못하고 어색하게 더듬거리는 모습을 말해요.

이 속담과 관련있는 말 미숙 · 불확실성 · 탐색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

2단계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ㅅ ㄱ] [ㄱ ㄴ ㅍ ㅍ] [ㄷ ㄷ ㄷ]

웹에서 보기

